

93.6.2

청소년 문화생활 '수동적 즐기기'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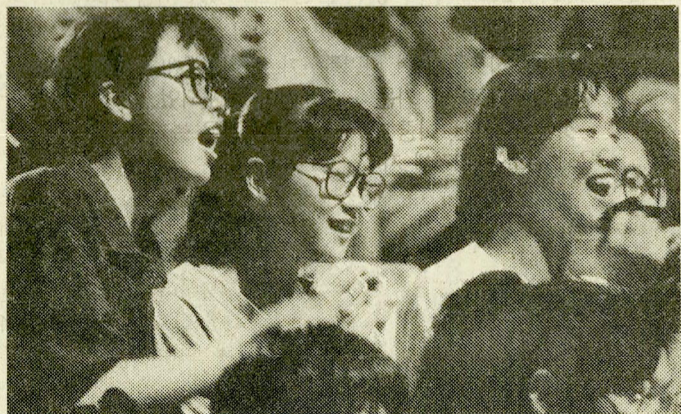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주로 텔레비전·비디오·가요 등 '대중적'인 문화에 '수동적'으로 노출돼 있을 뿐, 동아리 활동이나 연극·미술 관람 등 '적극적'인 문화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청소년대화의 광장(원장 박성수)은 1일 '청소년의 문화풍속도'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모임이 최근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8백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94.9%가 일주일에 1~2회 이상 텔레비전을 보고, 82%는 일주일에 1~2회 가요를 들으며, 43.3%가 일주일에 1~2회 이상 비디오를 보는 등 대중문화에 익숙해있었다.

반면 음악회는 16.6%만이 1년에 한두번 정도 가고, 연극·박물관·미술관 관람도 70% 이상이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내 동아리활동은 29.1%만이 일주일에

TV·비디오·가요 등 대중문화 노출 영향 동아리 활동·연극·미술 관람 거의 못해



청소년 대부분이 가요 등 대중문화는 가까이 접하는 반면 연극, 음악회 등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쇼프로그램 공개방송에서 환호하는 청소년들.

1~2회 정도 참여하며, 각종 교외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도 5%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46.6%의 청소년들이 한 달에 1~2회 이상 편지를 쓰며, 24.2%의 학생들이 일년에 1~2회

이상 수필을 쓰고, 45.7%가 일년에 1~2회 이상 시를 쓰는 등 글을 쓰는 문화활동에는 예상 외로 적극성을 보였다.

한편 '용돈에 여유가 있을 때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은 '영화 관람'이 으뜸이었고, 다음은 악기 연주, 비디오영화 만들기, 연극, 대중가수 콘서트 가기 등의 차례였다.

이번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실업고 학생들이 중학생이나 인문고 학생들에 비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고 학생들이 신문 읽기를 제외하고는 문화생활이 가장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맡은 청소년대화의 광장 박경애 책임연구원은 "이제까지의 예술교육이 단순히 작품과 그 이론을 외워서 시험을 보게 하는 데 그쳐 자기 스스로 즐기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학교생 고민 성적·이성교제 순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업성적이고, 아들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부모의 주된 관심도 학교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생명이 최근 서울시내 국민학교 남녀 회장 3백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7.2%가 가장 큰 고민으로 '학업성적'을 꼽았다. 다음은 '이성교제'(23.3%), '외모 및 신체'(16.4%), '건강'(5.9%), '친구관계'(4.4%), '가족문제'(1.6%) 차례였다.

부모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선 46.1%가 '학교성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건강'(33.8%), '친구관계'(9.1%), '성격'(6.3%) 등이라고 대답했다.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 30분이 23.7%로 가장 많았고, 하루에 10분 정도밖에 대화를 못한다는 어린이도 10.4%나 됐다.